

# 인재육성 위한 장학금 쾌척

## 불국사, 1억원 東大 경주캠퍼스에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손동진)는 “불국사주지 성사에서 장학금 1억원을 쾌척했다”고 1월 5일 밝혔다.

전달된 장학금은 불국사가 동국대의 불교 인재육성을 위해 조성한 ‘불국사장학금’으로 불자인재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성타 스님은 장학금 전달식에서 “동국대의 한 가족으로서 이 기금이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불교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우수 인재 양성에 동국대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손동진 총장은 “불국사에서는 불교 인재 세계화장학금 지원을 비롯해 설립원 혁신사업, 인근 군부대 후원 등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원을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오른쪽)과 손동진 총장.

아까지 않아왔다”면서 “불교인재 육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동섭 기자**

# 힘겨웠던 고난의 삶, 절에서 쉬소서

## 은해사·통도사, 중군위안부할머니와 이주노동자에 안식처 제공



은해사는 일본군 위안부 생활로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산 김순악 할머니(왼쪽)를 은해사 수림정에 무료 안식했으며, 통도사는 외국인 노동자 바하드 삼 구름씨의 다비식을 거행했다(오른쪽).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과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가 평생을 중군위안부 피해의 고통 속에 살았던 할머니와 마나면 이국에서 생을 마감한 이주노동자 안식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봉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은 “1월 2일 작고한 김순악 할머니를 경내 수림정에 안치하고 지장전에서 반존재를 봉행했다”고 4일 밝혔다.

80평생을 일본군 ‘위안부’의 멍에를 짊어지던 영면에 든 김순악 할머니는 영천 은해사 수림정에 안치됐다. 김 할머니의 49재도 영천 은해사에서 봉행된다.

김 할머니는 취임을 시켜준다는 일본군에게 속아 만주에서 일본군

성노에 생활을 했다. 20여 년간 시민단체 등과 일본정부에 책임을 묻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12월 대장암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으나 만 82세로 1월 2일 새벽 심장마비로 운명했다.

돈관 스님은 “일본군에 의해 평생을 고통받아온 할머니가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한 오랜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끝을 보지 못한 채 운명하고 말았다”며 “고인의 뜻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발원하고자 은해사 수림정에 무료 안치하고 49재 또한 은해사에서 봉행토록 했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의 작고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는 88명만 남게 됐다.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는 구랍 27일 서산의 여관 화재로 사망한 네팔 외국인 노동자 바하드 삼 구름(남, 35)씨의 다비식을 1월 2일 봉행했다.

바하드 삼 구름씨는 네팔에 딸을 둔 가정으로 2002년에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1월 초 नेपाल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월세로 거주하던 여관방이 불타면서 바하드 삼 구름씨의 ‘코리아인 드림’도 한층의 재가 됐다.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과 바하드 삼 구름씨 유가족과의 인연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우 스님은 한국의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타라 구름(바하드 삼 구름씨의 누나)씨의 시신을 수습하고 영가를 모셨다. 동생 바하

드 삼 구름씨까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 스님은 주저없이 통도사 다비장 사용을 제안했다.

정우 스님은 “한국의 대표사찰이며 불가의 종가인 만큼 산중의 좋은 시설과 아름다운 가풍을 모든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나눠야 한다”며 “향후에도 자비의 마음으로 다비장을 사회와 함께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도사 다비장은 그동안 스님들의 다비를 위해 사용돼 왔다. 일반인에게 사용을 허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 국내 사찰의 다비장이 개방된 경우는 이번이 최초다. **박선천 기자 sunjoo0802@naver.com**

## 우수 청소년 시설 달서구 수련관 선정

대구 달서구 청소년수련관(관장 선지)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우수 청소년 시설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053)629-9500 **손법천 대구지사장**

## 회장이·취임식 온블린 지역회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대구지역회는 1월 5일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행사는 동화사 주지 허은 스님과 조계종 대구시신도회 류병선 회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김주본 신임회장의 취임과 서상준 회장의 이임을 축하했다.

김주본 신임회장은 취임 인사말로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불법을 흥포하고 일본 MK택시와 같은 최고 수준의 서비스 체제를 갖추는데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 니만봐 부처님 법회 옥천 대성사서

중대사찰인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는 1월 22일 오전 10시 ‘니만봐 관세음보살 부처님’ 집안법회를 봉행한다.

혜철 스님은 “전국 최초로 사람의 동선을 따라가며 바라보는 ‘니만봐 부처님’ 500분을 모시고 집안 법회를 봉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043)732-5560 **혜철 총청지사장**

## 송년후원의 밤 개최 ‘함께하는 세상’ 주최

‘함께하는 세상(회장 박광, 파계사 주지)’은 구랍 27일 대구 호텔인터파크엑스스코에서 국제복지구호와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송년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박광 스님은 “주변마다 힘들다고 말하는 이별 패업수록 상호부조와 우호협력은 서로의 어려움을 헤쳐 나감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사장 지성 스님(前 동화사 주지)도 “대립과 반박이 심한 이따에 대중들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인류제단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 새해엔 건강 되찾길... 생명나눔, 박도현 환자에 치료비 전달

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본부장 박종명)는 구랍 29일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박도현(19세)군과 상세불명의 편마비로 치료중인 정문진(45세)씨에게 각각 100만원씩 치료비를 전달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는 부처님의 생명공양 정신을 실천하는 장기기증운동과 복지사



구랍 29일 뇌종양으로 투병중인 박도현군이 생명나눔 실천본부로부터 치료비를 전달받고 있다.

업 등을 목적으로 지난달 정립해 활발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053)945-0009 **손법천 대구지사장**

## “모두 회향하는 불자되길”

### 대구경북 불교리더 신년교례회 열려



1월 6일 대구경북불교리더 신년교례회 모습. 왼쪽부터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 동화사 주지 허은 스님.

2010 대구경북 불교리더 신년교례회가 1월 6일 대구불교방송 7층 문화센터에서 열렸다.

행사는는 대구불교방송 운영위원장인 호성 스님(의성 고운사 주지), 대구불교방송 사장 허은 스님(대구 동화사 주지) 등 지역 주요 사찰스님과 신행단체 대표자 150여 명이 참석한 신년 인사를 나누고 지역불교 발전을 위한 화합을 다졌다.

호성 스님은 신년 덕담을 통해 “자신이 두는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회향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법”이라며서 “올해는 우리 모두

회향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허은 스님은 “사부대중의 욕망을 끊임없이 절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위안받을 수 있는 방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새해 다짐을 밝혔다.

이날 신년교례회는 대구불교방송이 경인년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희망찬 새해를 축하하는 덕담과 불자 음악인 음성공양, 민찬 등으로 진행되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 촛불에 소원 담아 새해맞이

### 영천 은해사 새해 맞이 타종식 등 개최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은 1월 1일 새해맞이 타종식과 해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돈관 스님을 비롯한 은해사 대중스님, 신도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에 앞선 구랍 31일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도 함께 진행됐다. 템플스테이 참가 대중들은 저녁예불과 108배와 가족에게 편지쓰기, 발원문 쓰기 등을 통해 지난해를 되돌아봤다. 또,

새해 건강, 행복 등 각자 소원을 발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대중들은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촛불을 들고 각자의 소원을 비는 탐독이를 했다. 이어 일출 전 떡국을 나눠 먹은 대중들은 팔공산 산내암자인 중암암에 올라 만년송 바위 인근에서 떠오르는 경인년 새해를 맞이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 최초로 ‘직지’ 전시관 설립

### 독일 라이프치히 박물관서 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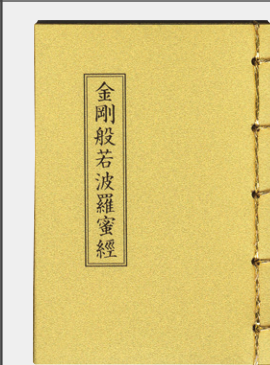
독일의 인쇄 관련 박물관에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 전시관이 설립된다.

청주 고인쇄박물관(관장 이철화)은 “<직지심체요절>의 세계화를 위해 독일 라이프치히 박물관에 ‘직지 전시관’을 만들 계획”이라고 1월 6일 발표했다. ‘직지’ 전시관이 들어설 라이프치히 박물관은 인쇄 관련 박물관으로, 고인쇄박물관이 이곳에 ‘직지’의 역사적 의미 등 각종 자료를 담은 패

널과 ‘직지’ 영인본, ‘직지’ 금속활자본, 금속활자를 만드는 밀랍주조법 관련 기기 등을 갖춘 직지전시관을 세운다.

고인쇄박물관 관계자는 “1997년부터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 교류해온 라이프치히 박물관이 전시관 설치에 제의 왔다”며 “‘직지’의 세계화를 위해 전시관 운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범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소) 3.5 × 5cm (중) 5 × 7cm

복상불소영가천도  
장량장가천도  
의식사용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목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 108염주, 단주 흑단목목주 / 흑단목목천주 크기 : 8mm × 10mm × 12mm 55,000원 10mm × 10mm × 12mm 65,000원 12mm × 10mm × 12mm 85,000원 흑단목목주에는 가귀이 정형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흑단목은 예술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밭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일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술사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아픈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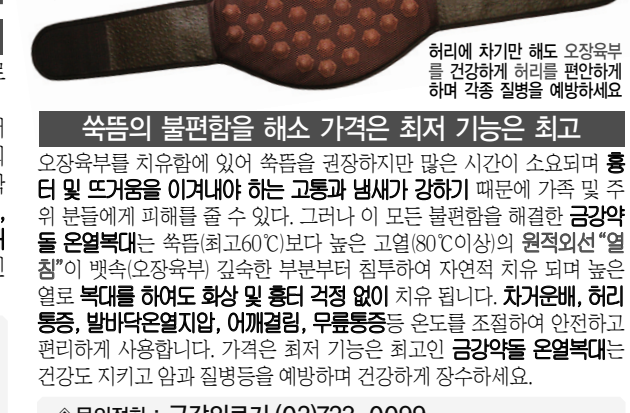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가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유각돌이** 80°C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갖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작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 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차신 **◆오심,관,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들**과 같이 건장이 약하신분에서는 3-4일 먼저 선체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에게서 체형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일금공출도 상담 합니다.



허리에 차면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해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